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 성인의 정신화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양육효능감 차이 검증

이 한 라¹⁾ 조 소 영²⁾ 백 성 은[†]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 성인의 정신화 양상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는 것이고, 둘째, 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셋째,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중년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화 양상에 따라 3개의 잠재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집단 특성에 따라 '저정신화 집단', '중정신화 집단', '고정신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신체화, 우울, 학력이 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양육효능감의 잠재프로파일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양육효능감은 고정신화 집단, 중정신화 집단, 저정신화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좌절감은 저정신화 집단, 중정신화 집단, 고정신화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화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개입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 성인의 정신화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특성을 규명하고,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정신화, 잠재프로파일, 양육효능감, 방임, 애착

1) 제 1저자: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수료생

2) 제 2저자: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졸업생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조교수,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818, E-mail: whsistar@naver.com

 Copyright ©202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녕을 위해 정신화(mentaliz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학자 Quan-Haase와 Wellman (2005)은 현대사회는 초연결 시대라고 말하며, 기술 발전으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타인과 쉽게 연결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기술 발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 욕구를 쉽게 충족하도록 도와 주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Roberts & David, 2016; High et al., 2024).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비교와 경쟁 구조는 소외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여 실제적인 관계 소외를 더욱 가중시켰다(오하은, 2024). 이처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함께이지만 홀로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Turkle, 2017).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으며, 정신화 개념은 현대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 틀로 주목받고 있다.

정신화란 마음이론, 애착이론, 사회인지 연구를 성인의 대인관계 심리치료에 적용한 개념으로 개인의 욕구, 욕망, 감정, 신념, 목표와 같은 내적 상태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Fonagy, 1989; Midgley & Vrouva, 2012). 유사한 개념으로 공감에 있는데, 공감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상태로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gers, 1957). 이때문에 정신화가 공감 능력과 단순 동의어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정신화는 타인에게 독립된 마음이 있음을 인지하는 마음이론에서 발전하여 그 마음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상위

인지적 성찰 기능을 포함한다(Fonagy & Luyten, 2009). 공감이 타인의 정서 상태를 함께 느끼는 상태에 초점을 둔다면, 정신화는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서로 구별된 표상으로 유지하면서도 표상 자체를 성찰 대상으로 삼는다(Fonagy & Luyten, 2018). 즉, 공감이 정서적 공유에 머문다면, 정신화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이 주관적 해석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그 이면의 역동을 탐색해 나가는 상위인지적 성찰 과정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신화와 공감이 타인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대인관계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닮아있지만 서로 다른 신경인지 회로의 활성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ranewitter & Schurz, 2025). 이처럼 정신화와 공감은 상이한 신경인지 기제를 바탕으로 하며, 특히 정신화가 내적 상태를 성찰과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감과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정신화는 개인의 정서를 조절하고 건강한 자기를 발달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로 대인관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Bateman & Fonagy, 2016). 정신화 수준이 높은 개인은 유연하고 적응적인 사고를 통해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다(Fonagy & Allison, 2014). 반면, 정신화 수준이 낮은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인지적 경직성과 타인에 대한 과잉 경계 및 인식적 불신, 만성적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킨다(Fonagy & Allison, 2014). 이러한 정신화는 개인 내 단일한 차원의 특성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관계적 요인에 의해 상호작용적으로 형성되고 양상에 따라 달리 발휘된다(Fonagy & Luyten, 2009). 구체적으로 자동적-통제적, 외적-내적, 인지적-정서적, 자기-타인의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차

원들이 균형을 이루며 발현된다(Bateman & Fonagy, 2016). 우선 자동적 정신화는 반사적이며, 직관적인 과정인 반면, 통제적 정신화는 숙고와 노력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느린 과정이다. 외적인 정신화는 관찰 가능한 행동 단서에 의존하는 반면, 내적 정신화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탐색하고 추론하는 성찰적 과정을 의미한다. 나아가 인지적 정신화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 추론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정서적 정신화는 마음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Bateman & Fonagy, 2016). 가령, 어떤 개인은 인지적 측면의 정신화는 우수하나 정서적 차원의 정신화 자원은 부족할 수 있다(Luyten & Fonagy, 2015). 이 중, 자기-타인이라는 두 축은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 토대로(Bateman & Fonagy, 2016) 자기의 내적 상태를 성찰하는 자기 정신화와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타인 정신화는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도록 하는 정신화 동기가 수반될 때 적응적인 대인관계적 소통이 가능해진다(Derogatis, 2001; Fonagy & Allison,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 이해를 위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화와 더불어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동기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한편, 발달 단계상 중년기(40~60세)는 정서적 이해 능력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로(Hartshorne & Germine, 2015), 관계의 질적 전환을 맞이하는 전환기이다. 이 시기 성인은 직업 장면에서는 조직 내 중간 관리자로서 관계 조율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Super, 1980). 실제로 가족 관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

계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대 64.6%에서 40대 중년 시기에 44.8%로 급격하게 감소하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7.2%에서 14.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통계청, 2024).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가 직장과 가정 내의 다각적인 관계적 긴장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임을 보여주며, 자기와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는 정신화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정신화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핵심 기능으로 전 생애 발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발달 단계별 심리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국내 정신화 연구는 주로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수 중심 접근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검증했으나(e.g. 김보배, 이은주, 2023; 고미나, 김보성, 2024),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정신화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나, 개인 내 정신화 하위 차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 즉 집단 내 이질적인 프로파일과 개인별 패턴을 충분히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정신화나 동기 수준은 높아도 자신에 대한 정신화는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집단 내 잠재적 이질성을 전체 평균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며, 이는 중년기 성인의 실제적인 정신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인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적용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 성인의 정신화 양상을 분류하고, 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신화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있다(Luyten & Fonagy, 2015). 성인기의 애착이란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에 따라 특정 반응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김은정, 김진숙, 2022). 정신화는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발달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되는 성취로 부모와 같은 주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속에서 정신화가 처음 획득되며, 발달 초기 및 이후 환경에서 내면의 정신 상태에 얼마나 집중하게 하는지가 정신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Allen et al., 2008). 애착 시스템은 인식적 신뢰감을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안정적인 애착 경험은 인식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신화 습득을 위한 길을 마련한다(Belsky & Fearon, 2008). 불안정애착의 경우, 과도한 애착 시스템의 과활성화 전략을 사용하거나 정서를 억압하는 등의 전략으로 정신화 기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Luyten & Fonagy, 2015).

비슷한 맥락에서 어린 시절 방임과 학대와 같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경우,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정신화 습득 기회를 놓치게 된다(Fonagy & Luyten, 2009).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대해 타당화 해주지 않거나 정신 상태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단서에 기반한 빠르고 직관적인 정신화에 의존하는 대처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Fonagy, 1991). 이러한 전략은 순간적인 상황 판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내부 상태 추론 능력을 약화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화가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취약성을 남긴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Bowlby, 2005), 이러한 초기 관계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의 정신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정신화는 정서적 각성에 따라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정된 특성(trait)과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상태(state)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진다(Luyten & Fonagy, 2015). 이 때문에 우울, 분노, 불안 등 개인의 정신건강이 정신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우울과 정신화가 부적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고(양지선, 홍혜영, 2022; 최정숙, 김완일, 2017), 신체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정신화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우지인, 안명희, 2024). 정신화가 감정 조절 및 자기조절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정신건강과 정신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공감과 안정애착 및 양호한 정신건강 수준은 높은 수준의 정신화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반면, 아동기 외상 경험은 낮은 정신화 수준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화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달하고, 타인의 정신화 수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성인의 정신화 수준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내적 세계를 구축하려는 분리-개별화 과업을 수행한다(Blos, 1979). 이 시기 주양육자의 정신화는 자녀의 변화하는 욕구와 정서를 자신과 분리된 상위인지적 표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성 시도를 부모에 대한 거부나 반항이 아닌 건강한 성장의 신호로 재해석하게 돕는다(Sharp & Fonagy,

2008). 실제로 주양육자의 정신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외현화 문제가 감소하고, 내면적 성장과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ieto-Retuerto, et al., 2025; Smaling et al., 2016). 반면, 정신화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자녀 간 비정신화 순환을 초래하여 자녀의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이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o & Wong, 2020; Madigan et al., 2019; Strob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의 부모-자녀 관계 맥락에 주목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 성인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집단 프로파일에 따른 양육효능감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신화의 대인관계적 기능과 임상적·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이나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애착과 정신건강 혹은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고미나, 김보성, 2024; 김보배, 이은주, 2023), 프로그램 효과 평가가 연구되었다(전성은 외, 2025). 중년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 대상 정신화 척도 개발(이문희, 이수림, 2019; 조소영, 2025), 프로그램 개발(이경숙 외, 2023)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애착과 정신화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변인들 간의 관계와 경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집단 내 정신화 양상의 개별적 다양성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를 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특성을 탐색하고, 공감, 애

착, 아동기 외상, 정신건강과 같은 영향 요인이 정신화 잠재프로파일에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정신화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부모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중년 성인의 정신화 수준과 양육 기능 간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중년 성인의 정신화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며,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공감, 애착, 아동기 외상, 정신건강은 중년 성인의 정신화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3. 중년 성인의 정신화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부모 양육효능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가설 3-1.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신화를 보이는 잠재프로파일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양육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청소년(만 13~18세) 자녀를 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의 목적, 익명성 보장 및 철회 가능성이 포함된 윤리적 절차를 거쳤으며, 응답자에

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다. 수집된 응답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남성 300명, 여성 3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48.72세,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1명(0.2%), 고등학교 졸업 55명(9.1%), 전문대학교 졸업 100명(16.7%), 대학교 졸업 354명(59.0%), 대학원 졸업 90명(15.0%)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위해 SPSS 23.0을 활용하였으며, 이어 Mplus 8.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적의 잠재프로파일수를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셋째,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공감, 애착, 아동기 외상, 정신건강의 통계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넷째, 결과 변인인 양육효능감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R3STEP 분석을 통해 영향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BCH 방법을 활용하여 잠재계층 간 양육효능감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측정도구

정신화 척도

정신화란 개인의 욕구, 욕망, 감정, 신념, 목표와 같은 내적 상태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Fonagy, 1989; Midgley & Vrouva, 2012).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 잠재프로파일 분류를 위해 Dimitrijević 등(2018)이 개발하고, 이수림과 이문희(2018)가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들을 수정 및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에 대한 정신화 6문항(예: 나의 느낌을 표현하기

에 충분한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렵다.), 타인에 대한 정신화 11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 수 있다.), 정신화 동기 8문항(예: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으로 총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역채점 8, 9, 16, 17, 19, 20) 정신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8이며, 하위요인 별로는 자신에 대한 정신화 .78, 타인에 대한 정신화 .86, 정신화 동기 .76으로 나타났다.

공감 척도

공감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상태로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gers, 1957). 본 연구에서는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avis(1980)가 공감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강일 외(2009)가 타당화하였다. 인지적 공감에는 관점수용과 상상하기 하위요인이 있고, 정서적 공감에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의 하위요인이 있다. 이 가운데,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은 공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Baron-Cohen & Wheelwright, 2004; Lawrence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관점수용(예: 나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려 한다.)과 공감적 관심(예: 나는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이 것이 쉽지 않다.) 두 하위요인만 사용하였으며, 각 7문항으로 총 14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역채점 2, 3, 7, 8, 9).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4이며 하위요인별로는 관점 수용 .73, 공감적 관심 .74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 척도

아동기 외상이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을 의미한다(Bernstein et al., 2003).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 측정을 위해 Bernstein 등(2003)이 개발한 아동기 외상 척도(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를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학대(예: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신체적 학대(예: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정서적 방임(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신체적 방임(나에게 제 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성 학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5문항씩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성적 학대를 제외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간주한다(역채점: 11, 12, 13, 14, 15, 17).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4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학대 .86, 신체적 학대 .89, 정서적 방임 .93, 신체적 방임 .80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애착 척도

성인 애착이란 위협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안정, 회피, 불안, 비조직화 전략 중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에 따라 특정 반응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안정애착은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외부 또는

내면화된 애착 대상에 근접성을 추구하여 안정감을 가지는 애착 양식을 말하며, 회피, 불안, 비조직화애착은 각각 애착 체계를 비활성화하거나 과잉 활성화하거나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지 못하는 부적응적 애착 양식을 뜻한다(김은정, 김진숙, 2022). 본 연구에서 성인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정과 김진숙(2022)이 개발한 성인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안정(예: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나를 신경써준다.), 회피(예: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편이다.), 불안(예: 내가 필요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곁에 없으면 불안하다.), 비조직화(예: 나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나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각 6문항,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애착 유형 특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0, 하위요인별로는 안정애착 .87, 회피애착 .79, 불안애착 .84, 비조직화애착 .87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척도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의미한다(Derogatis, 2001). 본 연구는 정신과적 증상 측정을 위해 Derogatis (2001)가 개발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Brief Symptom Inventory-18: 이하 BSI-18)를 박기쁨 외(201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신체화(예: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우울(예: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불안(예: 신경이 예민하고 안정이 안 된다.)을 포함하고,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어

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6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신체화 .89, 우울 .91, 불안 .90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척도

양육효능감은 Bandura(1971)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자녀의 발달 단계와 관계없이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신숙재,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결과 변인으로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이하 PSOC)를 신숙재(1997)가 변안, 수정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특정 발달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양육 상황에서의 부모의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문항 내용이 청소년기 양육 맥락에 적절한지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이 발달 단계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일반적 양육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항은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 9문항(예: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의 좌절과 불안 4문항(예: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3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인지적 차원의 양육효능감 점수가 높을수록(역채점 3, 6, 8) 부모로서 양육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차원의 양육효능감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과정에서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70,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차원 .79, 인

지적 차원 .81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인의 정신화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잠재프로파일별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Mplus 8.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의 한 유형으로 잠재집단을 분류하고자 하는 변인이 연속형 변인일 때 사용하는 모형으로 사람 중심적 접근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Bergman & Magnusson, 1997).

우선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수가 2~5개인 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때 사용한 적합도 지수로는 AIC, BIC, LMR, BLRT, Entropy 등이다. BIC와 AIC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Entropy는 하나의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을 표준화한 것으로 .80 이상은 분류의 질이 높다고 판단한다(Heck & Thomas, 2020). 잠재프로파일 수를 증가시켰을 때, 해석적으로 충분한 의미가 없거나 프로파일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잠재프로파일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Jung & Wickrama,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하면서 간명한 모델을 선택하였다.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고, 결과 변인인 양육효능감의 평균 차이 비교를 위해 3단계 접근법(three-step-approach)을 사용하였다. 1단계 접근법(one-step-approach)은 공변량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하면 잠재계층의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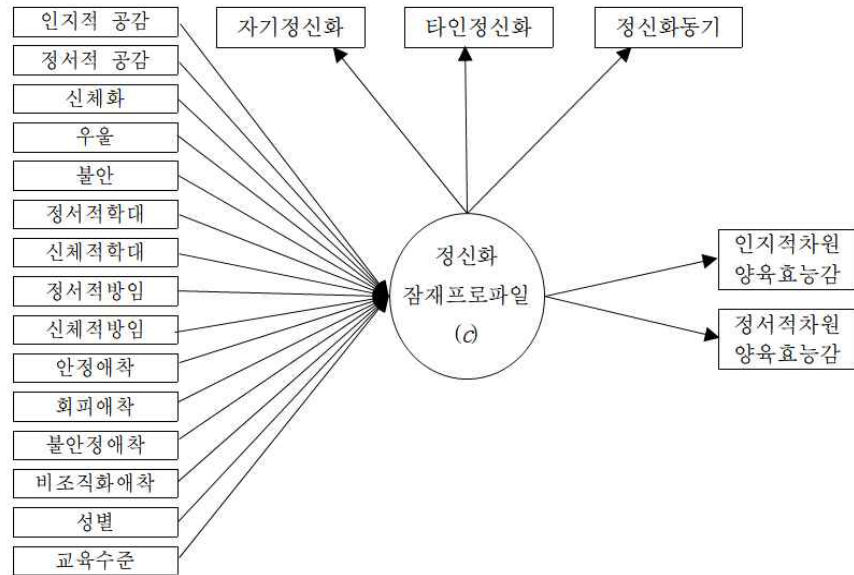


그림 1. 정신화 잠재프로파일 모형

을 고정하고 다른 변인의 영향을 추정하므로 (Asparouhov & Muthén, 2014), 잠재계층의 영향 요인과 결과 변인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3단계 접근을 위해 R3STEP을 통해 잠재계층의 영향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BCH를 통해 잠재계층에 따른 결과 변인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자신에 대한 정신화는 모든 변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 대한 정신화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화 동기는 모든 변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경우, 0 ~ .979의 절댓값이 나타났으며, 첨도의 절댓값은 .075 ~ 2.01로 각각 2와 8보다 낮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5).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정신화 잠재프로파일 수를 정하기 위해 프로파일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AIC, BIC, SSA-BIC), 모델 간 적합도 비교 검정(LMR-LRT 및 BLRT), 분류의 질(Entropy), 프로파일별 크기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수가 늘어남에 따라 AIC, SSA-BIC 값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6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246**	1																	
3	.546**	.596**	1																
4	.453**	.454**	.600**	1															
5	.402**	.570**	.615**	.634**	1														
6	-.479**	-.125**	-.371**	-.374**	-.236**	1													
7	-.517**	-.203**	-.401**	-.337**	-.321**	.736**	1												
8	-.530**	-.172**	-.401**	-.368**	-.273**	.851**	.847**	1											
9	-.370**	-.019	-.199**	-.226**	-.090*	.485**	.408**	.460**	1										
10	-.228**	-.067	-.190**	-.245**	-.111**	.406**	.336**	.381**	.673**	1									
11	-.321**	-.254**	-.294**	-.303**	-.267**	.317**	.393**	.330**	.531**	.461**	1								
12	-.379**	-.145**	-.341**	-.357**	-.212**	.495**	.428**	.472**	.595**	.602**	.580**	1							
13	.424**	.380**	.483**	.400**	.434**	-.420**	-.512**	-.443**	-.391**	-.286**	-.610**	-.493**	1						
14	-.427**	-.214**	-.409**	-.383**	-.384**	.370**	.435**	.381**	.368**	.328**	.337**	.437**	-.527**	1					
15	-.502**	-.194**	-.383**	-.321**	-.227**	.539**	.450**	.551**	.347**	.311**	.213**	.428**	-.234**	.345**	1				
16	-.598**	-.221**	-.442**	-.406**	-.316**	.596**	.580**	.644**	.515**	.420**	.369**	.569**	-.517**	.642**	.704**	1			
17	.465**	.541**	.525**	.428**	.520**	-.250**	-.404**	-.333**	-.160**	-.130**	-.360**	-.243**	.466**	-.331**	-.268**	-.352**	1		
18	-.525**	-.114**	-.316**	-.246**	-.228**	.445**	.530**	.546**	.340**	.221**	.261**	.338**	-.339**	.393**	.453**	.555**	-.418**	1	
M	3.34	3.56	3.52	3.61	3.49	1.77	2.13	1.93	1.96	1.79	2.36	1.92	3.64	2.55	2.31	2.23	3.21	2.72	
SD	.736	.475	.482	.542	.519	.796	.908	.834	.849	.868	.823	.730	.601	.632	.698	.732	.552	.734	
왜도	.123	.125	.566	.148	.087	.993	.580	.798	.638	.979	.377	.583	-.261	.049	.269	.324	.260	-.005	
첨도	-.395	.282	.116	.426	.538	.081	-.519	-.196	-.619	.172	-.075	-.573	.223	-.214	-.377	-.467	.218	-.519	

** $p < .01$, * $p < .05$ 주. 1. 자기 정신화 2. 타인 정신화 3. 정신화 동기 4. 인지력 공감 5. 정서적 공감 6. 신체화 7. 우울 8. 불안 9. 정서적 학대 10. 신체적 학대 11. 정서적 방임 12. 신체적 방임 13. 안정예측 14. 회피예측 15. 불안정예측 16. 비조작화예측 17. 인지적 차원 양유효능감 18. 정서적 차원 양유효능감

표 2.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분류 기준

분류 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2630.538	2532.090	2476.053	2455.367
	BIC	2674.508	2593.647	2555.198	2552.099
	SSA-BIC	2642.760	2549.200	2498.053	2482.255
모형비교 검증	p LMR-LRT	.0000	.0358	.0004	.0181
	p BLRT	.0000	.0000	.0000	.0000
분류의 질	Entropy	.762	.775	.719	.761
프로파일별 크기(%)	1	70.3%	36.5%	20.3%	4.1%
	2	29.7%	7.6%	6.5%	32.2%
	3		55.9%	39.0%	15.7%
	4			34.2%	41.9%
	5				6.1%

그림 2와 같이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정보지수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지수를 고려하였을 때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인 모형이 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모형비교 검증인 LMR-LRT와 BLRT는 p 값이 유의하면 영가설에 해당하는 $k-1$ 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은 기각하고, k 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한다. 표 2에 따르면, BLRT는 모든 모형에서 p 값이 유의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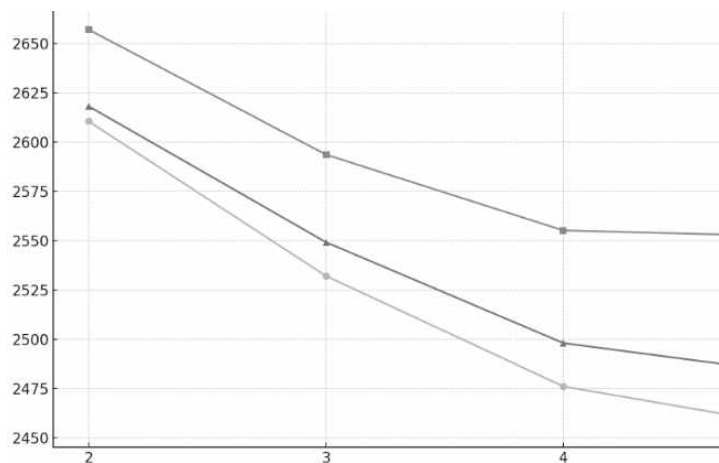


그림 2.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 변화 양상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BLRT는 클래스 수 증가에 과민한 경향이 있으므로 LMR-LRT 결과와 함께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Vermunt & Magidson, 2002). LMR-LRT 결과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p < .05$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집단이 정확하게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잠재프로파일 수가 2개인 경우 .762, 3개인 경우 .775, 4개인 경우 .719, 5개의 경우 .761로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인 경우 분류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별 크기 또한 해석의 중요 기준 중 하나이다. Nylund 등(2007)은 전체 표본의 5% 미만으로 분류되는 소수 프로파일의 경우 과적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인 모델이 가장 간명하고 적합한 모델로 보았으며, 소수 프로파일이 전체의 7.6%로 나타나 허용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개의 잠재프로파일 가지는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인

표 3. 사후계층 소속 확률표

	1	2	3
1	.860	.034	.106
2	.114	.886	.00
3	.079	.00	.921

모델의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통해 분류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속 확률이 .70 이상일 때, 비교적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Nagin,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계층1의 평균 사후확률은 86.0% 계층2는 88.6%, 계층3은 92.1%로 나타나 잠재프로파일이 3개인 모델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분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본 연구에서는 정신화 척도 하위요인인 자신에 대한 정신화(자기 정신화), 타인에 대한 정신화(타인 정신화), 정신화 동기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개 계층별 평균과 표준오차를 비교하였으며, 그림 3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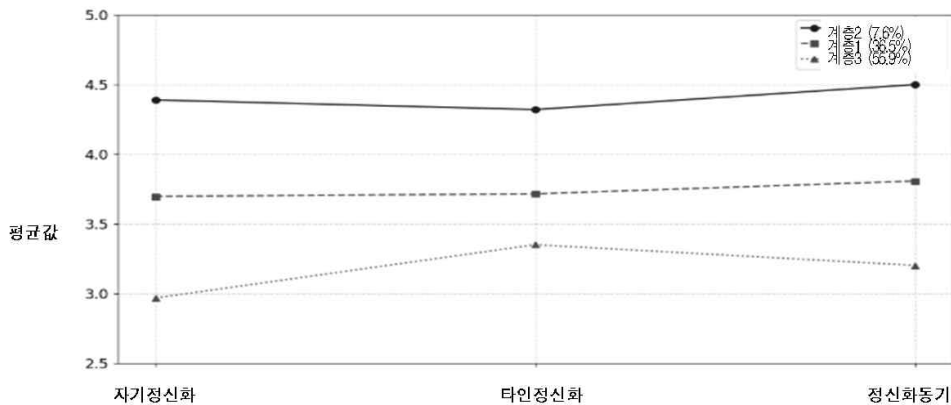


그림 3. 잠재집단의 특성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정신화의 경우 계층1에서 평균이 3.696($S.E. = .122$)로 나타났으며, 계층2에서는 4.388($S.E. = .206$), 계층3에서는 2.967($S.E. = .042$)로 확인되었다. 이는 계층2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 정신화를 보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타인 정신화 또한 계층2에서 평균 4.319($S.E. =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층1은 3.714($S.E. = .053$), 계층3은 3.349($S.E. = .035$)로 나타나 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정신화 동기의 경우에도 계층2의 평균이 4.498($S.E. = .110$)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계층1은 3.806($S.E. = .081$), 계층3은 3.201($S.E. = .040$)로 나타났다. 각 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층2에 속하는 집단은 자기 정신화와 타인 정신화, 정신화 동기가 매우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계층1은 자기 정신화, 타인 정신화, 정신화 동기가 중간 정도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계층3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 정신화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계층1은 중정신화 집단, 계층2는 고정신화 집단, 계층3은 저정신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영향 요인 및 결과 요인 검증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영향 요인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각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수는 변수에 의해 각 준거집단 대비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의 로그 값이다. 이 값은 양수이면,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수(B)가 음수이면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준거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승산비(*Odds Ratio*)는 영향 변인이 1 증가할 때,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이 속할 오즈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다. 정신화의 영향 요인에 대한 요인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공감의 경우, 저정신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정신화 집단에 비해 인지적($B = -3.193, p < .001, OR = 0.04$)·정서적($B = -2.882, p < .001, OR = 0.06$) 공감 수준이 모두 낮았으며, 고정신화 집단 비교에서도 인지적($B = -4.565, p < .05, OR = 0.01$) 및 정서적($B = -5.737, p < .01, OR = 0.01$) 공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보다 인지 및 정서적 공감이 높은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인지 및 정서적 공감 수준의 저하는 저정신화 집단을 다른 두 집단과 구분 짓는 주요한 특성임을 시사한다.

아동기 외상의 하위요인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방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에 비해 정서적 방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B = -0.982, p < .05, OR = 0.38$), 저정신화 집단은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 정서적 방임($B = 1.223, p < .01, OR = 3.4$) 및 신체적 방임($B = 1.767, p < .001, OR = 5.85$)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저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 방임 수준은 유의하게 높았으나($B = 1.081, p < .001, OR = 3.4$) 정서적 방임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안정애착의 경우, 고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에 비해 안정애착 수준이 유

표 4. 정신화 영향 요인

준거집단		중정신화 집단(계층1)				고정신화 집단(계층2)	
비교집단		고정신화 집단(계층2)		저정신화 집단(계층3)		저정신화 집단(계층3)	
변인		<i>B</i> (<i>SE</i>)	<i>OR</i>	<i>B</i> (<i>SE</i>)	<i>OR</i>	<i>B</i> (<i>SE</i>)	<i>OR</i>
공감	인지적 공감	1.372(2.025)	3.94	-3.193(0.841)***	0.04	-4.565 (2.199)*	0.01
	정서적 공감	2.855(1.576)	17.37	-2.882(0.752)***	0.06	-5.737 (1.755)**	0.01
아동기 외상	정서적 확대	0.191(0.650)	1.21	-0.055(0.217)	0.95	0.136(0.597)	1.15
	신체적 확대	0.670(0.613)	1.95	0.090(0.219)	1.09	0.760(0.561)	2.14
	정서적 방입	-0.982(0.475)*	0.38	-0.241(0.200)	0.79	1.223(0.463)**	3.4
애착	신체적 방입	-0.687(0.532)	0.05	1.081(0.241)***	3.4	1.767(0.514)**	5.85
	안정	2.082(0.574)***	8.017	-1.427(0.310)***	0.240	-3.508(0.624)***	0.030
	회피	-1.008(0.599)	0.365	0.069(0.349)	1.071	1.077(0.649)	2.937
	불안정	-0.374(0.609)	0.688	1.186(0.368)**	3.276	1.561(0.586)**	4.762
정신건강	비조직화	-0.521(0.730)	0.594	0.542(0.362)	1.720	1.063(0.737)	2.895
	신체화	0.260(1.354)	1.297	0.855(0.371)*	2.35	0.595(1.281)	1.813
	우울	-2.021(0.761)**	0.132	0.083(0.288)	1.087	2.105(0.751)**	8.204
인구 통계학적	불안	0.009 (1.034)	1.009	0.714 (0.380)	2.043	0.705(0.995)	2.025
	성별	0.024(0.568)	1.025	0.106(0.310)	1.112	0.082(0.590)	1.085
	학력	0.642(0.353)	1.901	-0.383(0.187)*	0.681	-1.026(0.366)***	0.359

*** $p < .001$, ** $p < .01$, * $p < .05$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B = 2.082$, $p < .001$, $OR = 8.017$), 저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보다 안정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B = -1.427$, $p < .001$, $OR = 0.240$). 저정신화 집단은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서도 안정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 = -3.508$, $p < .001$, $OR = 0.030$). 불안정애착의 경우, 저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보다 불안정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186$, $p < .01$, $OR = 3.276$), 고정신화 집단과 저정신화 집단 간 비교에서도 저정신화 집단의 불안정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561$, $p < .01$, $OR = 4.762$). 반면, 고정신화 집단과 중정신화 집단 간에는 불안정애착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피애착과 비조직화애착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신건강 하위요인인 신체화, 우울, 불안을 영향요인으로 두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화의 경우, 저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에 비해 신체화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855$, $p < .05$, $OR = 2.35$). 우울의 경우, 고정신화 집단

표 5. 잠재프로파일별 양육효능감 차이 검증

	계층3(저)	계층1(중)	계층2(고)	$\chi^2(df=2)$	<i>p</i>	<i>Scheffe</i>
	<i>M(SE)</i>	<i>M(SE)</i>	<i>M(SE)</i>			
인지적 차원 (부모로서 효능감)	2.969(0.027)	3.388(0.040)	4.114(0.094)	186.868	.000	2>1>3
정서적 차원 (부모의 좌절과 불안)	2.930(0.040)	2.549(0.059)	2.002(0.136)	63.185	.000	3>1>2

은 중정신화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B = -2.021, p < .01, OR = 0.132$), 저정신화 집단이 고정신화 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2.105, p < .01, OR = 8.204$). 이때 저정신화 집단이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 우울에 속할 오즈가 약 8.2배 높음을 보여주었다. 저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 수준은 모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부모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학력은 일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정신화 집단은 저정신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으며($B = -0.383, p < .05, OR = 0.681$), 고정신화 집단과 저정신화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저정신화 집단은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 학력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B = -1.026, p < .001, OR = 0.359$).

다음으로 잠재집단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하위요인에 미치는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BCH 방법을 사용하여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세 집단 간에 인지적 차원의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 = 186.868, p < .001$). 저정신화 집단의 평균은 2.969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고정신화 집단의 평균은 4.1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정신화 집단의 평균은 3.388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정서적 차원의 양육효능감에서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 = 63.185, p < .001$). 저정신화 집단의 부모 좌절감 평균이 2.930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정신화 집단 2.549점, 고정신화 집단 2.002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지적 양육효능감은 고정신화 집단, 중정신화 집단, 저정신화 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부모 좌절감은 저정신화 집단, 중정신화 집단, 고정신화 집단 순으로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정신화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집단에 따른 영향요인과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바탕으로 개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감(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아동기 외상(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인 애착(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정애착, 비조직화애착), 정신건강(신체화, 우울, 불안), 성별 및 학력 변인을 영향 요인으로 투입하여 각각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화 하위요인인 자신에 대한 정신화, 타인에 대한 정신화, 정신화 동기를 지표변인으로 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한 결과, 저정신화 집단, 중정신화 집단, 고정신화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저정신화 집단은 전체의 55.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자기·타인 정신화와 정신화 동기가 모두 낮은 특징을 보였다. 중정신화 집단은 36.5%로 모든 정신화 하위요인이 중간 수준이었고, 고정신화 집단은 7.6%로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며 세 하위요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고정신화 집단 비율이 전체의 7.6%로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한다는 점은 정신화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복잡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상위인지적 균형을 완벽히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발달적 성취임을 보여준다(Fonagy & Luyten, 2009).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저정신화 집단(55.9%)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자기 정신화가 타인 정신화 및 정신화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하지 않아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Fonagy (2001) 이론을 뒷받침한다. 저정신화 집단의 경우,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관계를 잘 해보고 싶은 동기가 외부 자극에 의해 유도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조절하는 내적 기제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이 실제 내적 경험과 연결되지 못한 채 관념적으로만 떠도는 가상 모드(pretend mode)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정신화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의 경우, 자기 경험과 내적 상

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둘째, 정신화와 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저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및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 인지적·정서적 공감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정신화 집단과 고정신화 집단의 공감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와 공감 모두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능력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서로 다른 신경인지 회로의 활성화와 관련된 구별되는 개념(Kranewitter & Schurz, 2025)이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종합하면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정신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저정신화 집단에서 공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공감의 결여가 정신화 실패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박영주, 오현숙, 2024). 이는 정신화 수준이 낮은 개인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서적 특성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아동기 외상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모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은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방임의 경우, 고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에 비해 정서적 방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저정신화 집단은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 정서적 방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적 방임의 경우, 저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에 비해 신체적 방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저정신화 집단은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 신체적 방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정신화는 양육자가 아

등의 주관적 상태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되비추어주는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성취이다 (Fonagy et al., 2005). 즉, 학대의 경우, 비록 왜곡되거나 위협적일지라도 관계적 자극이 존재하여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유도하지만 방임은 아동의 내적 상태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반응 자체가 결핍된 상태이다. 따라서 돌봄의 부재인 정서적 방임이 정신화 발달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 장면에서는 노골적인 외상 경험뿐 아니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되기 쉬운 방임 경험을 세심하게 탐색하고, 그 경험을 언어화, 정서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성인애착의 경우,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이 잠재프로파일을 구분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집단보다 안정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저정신화 집단은 중정신화 및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안정애착 수준을 보였다. 불안정애착의 경우, 저정신화 집단이 중정신화 및 고정신화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주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정신화를 처음 획득하고, 이후 정신화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Allen et al., 2008). 이처럼 정신화 수준과 안정애착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신화 수준이 낮은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자기와 타인의 내적 상태를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관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정신건강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체화와 우울이 잠재프로파일을 유의하게 구분하였다. 저정신화 집단이 중정신화 집단에

비해 신체화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화 수준이 낮은 성인은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신체 증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우지인, 안명희, 2024). 우울의 경우, 저정신화 집단과 중정신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정신화 집단이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저정신화 집단의 구성원이 고정신화 집단에 비해 우울 집단에 속할 오즈가 약 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화 수준이 낮은 성인에게서 우울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화 수준이 낮은 내담자에게 신체화와 우울 같은 정서적·신체적 증상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신체감각 자각 훈련, 이완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며, 마음챙김 기반 정신화치료(MBT; Bateman & Fonagy, 2016; Bateman et al., 2023)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은 잠재프로파일을 유의하게 구분하지 못한 반면, 학력은 저정신화 집단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성별에 따른 정신화 수준의 뚜렷한 차이보다는 교육 경험을 통한 인지적 자원의 축적이 정신화와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접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통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내적 상태를 이해하고 조망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특정 성별에 한정된 개입보다는 성별을 초월한 보편적 심리교육과 정신화 촉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양육효능감의 잠재프로파일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차원의 양육효능감은

고정신화 집단, 중정신화 집단, 저정신화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상황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자기 인식이 강화되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차원의 양육효능감(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좌절감)은 저정신화 집단, 중정신화 집단, 고정신화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정신화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양육 장면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양육자의 정신화가 자녀의 욕구와 정서를 자신과 분리된 상위인지적 표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단순한 문제행동이 아니라 발달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소통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Sharp & Fonagy, 2008). 즉, 정신화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 행동의 이면에 있는 정서와 의도를 추론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이해와 통제감을 높이는 반면, 정신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행동의 표면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부정적 해석이 반복되고, 이에 따라 양육 상황에서의 좌절과 불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프로파일별 특성을 고려할 때, 집단별로 차별화된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저정신화 집단의 경우, 자녀 이해에 앞서 부모 자신의 내적 경험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언어화하는 기본적인 정서 인식 및 성찰 훈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가상 모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정신화 집단의 경우, 평상시 적절한 정신화 수준을 나타내지만 정서적 각성이 높은 양육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신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 정신화 유지 전략을 강화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정서적 과각성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비판단적으로 상황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고정신화 집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신화를 보이지만, 복잡한 관계 맥락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위인지적 조절 능력을 보다 정교화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차원의 변인 중심 접근의 한계를 넘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 성인 집단의 잠재적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고정신화 집단이 소수이며, 저정신화 집단의 경우 자기 정신화 수준이 타인 정신화와 정신화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는 능력이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고 본 것과도 관련이 있다(Fonagy et al., 2005). 둘째,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화의 하위 차원들이 실제로 매우 통합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신화의 하위요인들이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정신화와 공감의 유사하지만 서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심리적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중정신화 집단과 고정신화 집단 간 공감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는 공감을 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신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방임 경험이 중년 성인의 정신화 잠재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영향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 주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반응과 심리적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러

한 경험이 내적 작동 모델 형성에 영향을 주어 중년 성인의 정신화 수준과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학대 경험에 비해 방임 경험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정신화 이해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가시화되는 외상 경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중년 성인의 정신화 수준이 과거 양육 받은 경험과 현재의 양육 인식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신화가 부모 세대의 경험과 자녀 양육 맥락을 연결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중년 성인의 정신화 증진이 세대 간 부적응적 관계 패턴을 완화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고정신화 집단이 7.6%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고정신화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화 발달과 유지 과정, 보호 요인 등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정신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개입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자료의 한계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신화 수준이 낮은 개인일수록 자신의 정신화 부족이나 성찰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실제 상호작용이나 서술 내용을 분석하는 수행 기반 측정 또는 심층 면접법을 병행하여 자기보고 자료와 교차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유사하게 방임 경험이 정신화와 관련됨을 확인하였으나 자기보고식 자료의 한계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방임 경험이 정신화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 설계 등 보다 정교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임 경험을 가진 부모 대상의 정신화 증진 개입의 효과성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정신화의 발달 메커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 대상이 대학교 졸업 이상(74%)에 편중되어 한국 중년 성인 전체 인구의 학력 분포와 괴리가 있어 연구 결과를 중년 성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력이 정신화 프로파일의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이 보다 다양하게 분포된 표집 틀을 구성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비임상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으로 확장하여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 집단에서는 정신화의 하위요인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격장애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에서는 차원 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Luyten & Fonagy, 2015). 임상적 특수성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다면 일반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수의 예측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다중 비교 문제에 대한 별도의 보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결과에서 제1종의 오류 가능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정 방법을 적용하거나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년 성

인의 일반적 정신화 수준을 중심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정신화 척도와 더불어 양육 맥락에 특화된 부모 정신화 척도를 활용하여 부모 역할 상황에서의 정신화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는 하위 차원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기에 관찰된 패턴이 집단의 핵심 특성으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하위 차원 간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집단 명명과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비교를 위해 남녀 표본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나 이러한 인위적 표집 방식이 잠재프로파일 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성별이 프로파일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실제 효과의 부재라기보다 표집 방식의 영향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연적 성비를 반영한 표집을 통해 성별에 따른 정신화 프로파일 차이를 보다 타당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제안을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중년 성인의 정신화와 양육 기능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이론 및 실천적 모형이 정교화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 일, 기선완, 김성은, 황지희, 송지은, 장범석, 김지웅 (2009). 한국어판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8(5), 352-358.
- 고미나, 김보성 (2024).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 정신화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5(1), 93-105.
- 김보배, 이은주 (202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0), 239-253.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은정, 김진숙 (2022). 성인용 애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3(6), 167-195.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의 타당화 연구. *한국임상학회지*, 31(2), 507-521.
- 박영주, 오현숙 (2024). 병리적 자기애가 정신화실패에 미치는 영향: 정서 인식 명확성으로 조절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9(3), 365-387.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양지선, 홍혜영 (2022). 초기 성인기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 정신화와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3(2), 147-166.
- 오하은 (2024.10.30.).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 SNS발 'FOMO 증후군' 확산. 하이뉴스.
https://www.hinews.co.kr/view.php?ud=2024102817342949279284fa285d_48
- 우지인, 안명희 (2024). 자기애적 취약성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된 정서성과 수동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5(6),

- 109-132.
- 이경숙, 변소연, 김은영 (2023).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신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효과.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2(1), 1-20.
- 이문희, 이수림 (2019). 한국판 모(母) 정신화 척도의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26(1), 137-157.
- 이수림, 이문희 (2018). 한국판 정신화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9(5), 117-135.
- 전성은, 이혜진, 강영신 (2025). 애착 외상 경험 대학생을 위한 정신화 기반 대인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7(2), 623-657.
- 조소영 (2025).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신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숙, 김완일 (2017). 병사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신화 실패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289-312.
- 통계청 (2024). 가족관계 만족도(자녀와의 관계, 13세 이상 인구). 국가통계포털.
- Allen, J. G., Fonagy, P., & Bateman, A. W. (2008). *Mentalizing in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andura, A. (1971). *Social learning theory*. General Learning Press.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 Bateman, A., & Fonagy, P. (2016).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for personality disorders: A practical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 Bateman, A., Fonagy, P., Campbell, C., Luyten, P., & Debbane, M. (2023). *Cambridge guide to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lsky, J., & Fearon, P. R. M. (2008). Precursors of attachment security.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 295-316). Guilford Press.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 Stokes, J.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7(2), 169-190.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wlby, J. (2005).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Routledge.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 (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NCS Pearson.

- Dimitrijević, A., Hanak, N., Dimitrijević, A. A., & Marjanović, Z. (2018). The mentalization scale (MentS): A self-report measure for the assessment of mentalizing capac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0*(3), 268-280.
- Fonagy, P. (1989). On tolerating mental states: Theory of mind in borderline patients. *Bulletin of the Anna Freud Centre, 12*(2), 91-115.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4), 639-656.
- Fonagy, P. (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Other Press.
- Fonagy, P., & Allison, E. (2014). The role of mentalizing and epistemic trust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Psychotherapy, 51*(3), 372-380.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L., & Target, M. (2005).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Other Press.
- Fonagy, P., & Luyten, P. (2009). A developmental,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355-1381.
- Fonagy, P., & Luyten, P. (2018). Attachment, mentalizing, and the self. In W. J. Livesley & R. Larstone (Eds.), *Hand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2nd ed., pp. 123-140). Guilford Press.
-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tshorne, J. K., & Germine, L. T. (2015). When does cognitive functioning peak? The asynchronous rise and fall of different cognitive abilities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ical Science, 26*(4), 433-443.
- Heck, R. H., & Thomas, S. L. (2020). *Introduction to multilevel modeling techniques: MLM and SEM approaches*. Routledge.
- High, A. C., Fox, J., & McEwan, B. (2024). Technology, relationships, and well-being: An overview of critical research issues and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1*(5), 1055-1072.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1-317.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ress.
- Kranewitter, B. & Schurz, M. (2025). A quantitative review of brain activation maps for mentalizing, empathy, and social interactions: Specifying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havioral Sciences, 15*(7), 934.
- Lawrence, E. J., Shaw, P., Baker, D., Baron-Cohen, S., & David, A. S. (2004). Measuring empath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pathy quotient. *Psychological Medicine, 34*(5), 911-920.
- Lo, C. K. M., & Wong, S. Y. (2020).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programs in regard to improving parental reflective functioning: a meta-analysi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4*(1), 76-92.

- Luyten, P., & Fonagy, P. (2015). The neurobiology of mentalizing.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4*(4), 366-379.
- Madigan S. C., Eirich, R., Fearon, R. P., Ly, A., Rash, C. (2019). Testing the cycle of maltreatment hypothesis: meta-analytic evidence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maltrea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1*(1), 23-51.
- Midgley, N., & Vrouva, I. (2012). *Minding the child: Mentalization-based interventions with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Routledge.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Nieto-Retuerto, M., Torres-Gomez, Barbara, & Alonso-Arbiol, I. (2025). Parental mentalization and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7*(4), 1804-1820.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Quan-Haase, A. & Wellman, B. (2005). Local virtuality in an organization: Implications for community of practice. *Communities and Technologies, 215-238*.
- Roberts, J. A., & David, M. E. (2016). My life has become a major distraction from my cell phone: Partner phubb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romantic partn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34-141.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2), 95-103.
- Sharp, C., & Fonagy, P. (2008). The parent's capacity to treat the child as a psychological agent: Constructs, measure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Social Development, 17*(3), 737-754.
- Smaling H. J. A., Huijbregts, S. C. J., Heijden, K. B., Goozen, S. H. M., & Swaab, H. (2016).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children's temperament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44*, 263-274.
- Stob, V., Slade, A., Brotnow, L., Adnopolz, J., & Woolston, J. (2019). The family cycle: an activity to enhance parents' mentalization in children's mental health treatment. *Journal of Infant,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18*(2), 103-19.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Turkle, S. (2017). *Alone together*. Basic Books.
-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In J. A. Hagenaars & A. L. McCutcheon (Ed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pp. 89-1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문 투고일 : 2026. 02. 18
1 차 심사일 : 2026. 03. 21
게재 확정일 : 2026. 05. 07

Latent Profile Analysis of Mentalization in Middle-Aged Adults with Adolescent Children and Examining Group Differences in Parenting Efficacy

Hanla Lee Soyoun Cho Sungeun Bae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hreefold: first, to classify latent profiles based on the mentalization patterns of middle-aged adults with adolescent children; seco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group classification; and third, to examine differences in parent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identified latent profiles. To achieve these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600 adults with adolescent children, and latent profile analysis (LPA) was utili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ntalization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groups, labeled as 'low mentalization group', 'moderate mentalization group', and 'high mentalization group'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latent profiles revealed that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emotional neglect, physical neglect, secure attachment, insecure attachment, somatization, depression and educational leve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group classific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cognitive parenting self-efficacy was highest in the high mentalization group, followed by the moderate mentalization group, and the low mentalization group. Conversely, anxiety and frustration in parenting was highest in the low mentalization group, followed by the moderate and the high mentalization group.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interventions and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latent profiles of mentalization were present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adults based on their mentalization latent profiles and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exploring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Key words : mentalization, latent profile, parenting efficacy, neglect, attachment